'情報源 案內' 論

尹 炳 泰*

目次

1 緖 言
2 定義와 慣用語
3 種類와 그 檢索
4 作成할 內容
5 作成의 過程
6 主題別 案內의 範疇
7 結 言
參考 文獻

1 緖 言

1995년에 미국 의회도서관의 초청을 받아 만 1개월 간을 워싱톤에서 지내고 온 일이 있다. 그 때 시간이 나는대로 시내에 있는 대학도서관 거의 전부와 가까운 곳인 매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에 있는 몇몇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리고 전문도서관을 방문한 일이 있다.[1] 그 곳을 다녀 본 결과 모든 도서관은 전산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 전산화를 그들은 이미 5년 전에 마치고 있었다. 또 모든 도서관은 서로 봉사망(service network)을 이루어 봉사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 구성원만을 위하여 봉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주민에게까지 도서관 봉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선 학생증 · 시민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여도 되었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청원 경찰의 도움도 컸지만, 사서의 친절한 안내, 자상하고 눈에 띄기 쉽게 게시한 안내표시 등을 통하여, 한 번 입관한 도서관의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한 일이 있다.

필자는 "주제 서지 · 정보원"을 오래동안 가르쳤다.[2] 그러는 한편 교과서로 쓰기 위하여 여러 권의 관계되는 책을 출판하였으며, 그 개정판들을 출판하였고, 최신 정보나 자료는 전산 출력하여 배포하였다.[3] 그러다 보니 실지로 가서 본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사정뿐만 아니라,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의 서지과목 교육과 그에 관한 자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던 차에 찾아 보게된 워싱

* 文學博士, 忠南大學校 名譽敎授, 本會 平生會員.

1) 尹炳泰, "美國 華府 求書記 (第52回 發表 要旨)", 古書硏究, 第12號, (韓國古書硏究會, 1995.12.27.), pp. 107-112 ; 韓國古書硏究會, 汎友 尹炳斗 先生 華甲記念論文集 (서울 : 保景文化社, 1995.12.27.), pp. 107-112에다 미국에서의 체류하고 활동한 일지를 기록하였다.

2) 필자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대학 학부에서, 주제별서지 · 인문과학서지 · 사회과학서지 · 자연과학서지 · 한국서지와 같은 서지 정보원에 관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처음 7년간을 경북대학교에서, 그리고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충남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정년 퇴임한 후에는 한국학대학원에서 특강으로 강의하고 있다.

톤과 주변의 여러 도서관의 서지 · 정보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관찰하였고, 또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는 도서관마다 소장하고 있는 장서목록을 전산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으로 서지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마다 많은 CD-ROM을 비치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을 보았다. 또 인상적인 것은 종이에 출력한 '정보원 안내'를 마련하고 있어, 필요한 사람이면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는 학과별, 전공별, 큰 분야별로, 때론 강의 과목별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청구기호를 붙인 '정보원 안내'를 만들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한 것을 보았다. 필자도 여러 도서관에서 사서의 양해를 구하여 귤상자로 모두 세(3)상자나 되는 양의 '정보원 안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미국 의회도서관 기증 · 교환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사서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우송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미 여러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정보원 안내'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 일은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글을 발표한 일도 있다.[4]

영국의 대영도서관에서는 '정보원 안내'에 관한 연구 개발 기금까지 제공하면서 연구케 하고 그 결과까지 출판하였다.[5] 이제는 우리 학계에서도 많은 '정보원 안내' 책자나 전자출판물을 유료나 무상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자의 그 많은 저작은 전혀 인증(cited)되고 있지 않다. 필자는 한국 고전 서지학 중에서도 한국의 활자 인쇄와 목판 인쇄를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에,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이 주제 서지를 가르치고 있는 여러 동학에게 누가 되지않을까하여 망설였으나, 이미 출판한 저작을 보완하기 위하여도 전면적인 수정과 증보를 가하게 되었다.

지금은 많은 외국 정보원을 디지털화해서 상업적으로 이용케 하고 있다. 또 도서관에 따라 자기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정보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랜(LAN)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 중국 · 일본어나 동구권의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출판된 정보원을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다국어(多國語)의 자료를 다루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에게, 앞으로 부가가치(附加價値)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도 이 글의 목적이 있다.

---

3) ㄱ. 尹炳泰, 人文 · 社會科學文獻 · 書誌情報源 (서울 : 利久出版社, 1983.8.15.). 506 p. 26 cm. 特裝本.
———, 改正稿 (合綴) ([大田 : 라이프社], 1986.3.1.). 254 + 285 p. 26.2 cm.
———, 改正四稿 ([大田 : 라이프出版], 1988.9.1.). 388 p. ; 26.4 cm.
ㄴ. 尹炳泰, 自然科學 · 技術文獻 · 書誌情報源 (私家版, 1983.9.15.) 185 p. 26 cm. 第6改訂版까지 냈다.
———, 改正增補稿 (서울 : 韓國書誌情報學會, 1985.9.1.). 396 p.
ㄷ. 尹炳泰, 自然科學書誌, 改正3稿 (大田 : 라이프出版, 1986.9.1.). 322 p. 26.4 cm.
ㄹ. 尹炳泰, 人文科學書誌情報源 (大田 : 라이프社, 1986.3.1.) 254 p. 26.4 cm.
ㅁ. 尹炳泰, 社會科學書誌情報源 (大田 : 라이프社, 1986.3.1.) 285 p. 26 cm.
———, 1997 (大田 : 대은사, 1997.9.1.). 285 p. ; 24.8 cm.
ㅂ. 尹炳泰, 人文 · 社會科學書誌 (국립중앙도서관, 1986.6.15.) 100 p. 26 cm. 강습자료로 무상 배포.
ㅅ. 尹炳泰, 韓國書誌 (稿) (大田 : 白馬社, 1989.3.1.) 90 p. 26 cm.
———, 改正稿 (大田 : 대은사, 1990.3.1.). 181 p. 25 cm.
ㅇ. 尹炳泰 編, 人文科學 情報소프트 (서울 : 외길사, 1994.3.1.) 348 + [10] p. 삽도. 22.5 cm. (主題 情報 소프트, 1). 7,000원.

4) 尹炳泰, "情報源 案內 論," 大學圖書館協議會 會誌, 第四號, (大田忠南地域 大學圖書館協議會, 1998.5.1.), pp. 31-52.

5) Taylor, P. J., Information Guides : a survey of subject guides to sources of information produced by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 British Library Board, 1978). 106 p. : illus., facsims. ; 29.3 cm. (The British Library Research & Development Reports, Report No. 5440).

아래에서는 '정보원 안내'에 대한 그 정의와 관용어를 알아 본 다음, '정보원 안내'에 드는 문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여야 하며, 정보원 안내를 작성한다면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고, 정보원 안내를 작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주제별로 정보원 안내를 작성할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문헌의 내용과 그 범주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배정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루어보기로 한다.

2 定義와 慣用語

2.1 情報源 案內의 定義

'정보원 안내'란 특정 주제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정보원을 안내하기 위하여 만든 책자, 비도서(시청각) 자료 그리고 전자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보원이란 문헌 · 시청각 자료 ·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기록된 정보원뿐만 아니라, 그 분야와 관련이 있는 인물 · 단체 · 기관이나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이나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비기록 정보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말한다. 따라서 정보원이란 이러한 기록 · 비기록의 정보원 전부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2.2 情報源 案內의 類似語

정보원 안내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하나의 문헌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많은 정보원 안내가 출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원 안내 특히 출판한 문헌 안내에는 서명에 자주 쓰이는 관용어(慣用語)가 있다. 아래에 드는 것은 그 예 중의 일부분이다. 먼저 한국 · 중국 · 일본에서 한자어로 나타내는 예를 먼저 들고, 나중에 영어형의 관용어를 예시한다. 파선(~)은 주제의 명사형이나 형용사형을 생략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명사형인 history 와 형용사형인 historical을 쓴다는 것이다.

2.2.1 東洋의 慣用語

1. ~ 검색서 (檢索書)
2. ~ 논저해제(論著解題)
3. ~ 문헌안내(文獻案內)
4. ~ 문헌조사법(文獻調査法)
5. ~ 문헌지(文獻志)
6. ~ 문헌총람(文獻總覽)
7. ~ 문헌해제 · 해설(文獻解題 · 解說)
8. ~ 자료대관(資料大觀)

9. ~ 자료해설(資料解說)
10. ~ 자료해제(資料解題)
11. ~ 정보 검색서(情報 檢索書)
12. ~ 정보소프트(情報소프트)

2.2.2 英語의 慣用語

1. Building ~ Collection
2. Concise Guide to ~ Reference Book
3. Finding and Using ~
4. Fundermental Reference Sources ~
5. Guide to ~ Literature
6. Guide to Reference Book ~
7. Guide to the Literature of ~
8. How to Find out ~
9. How to Use ~ Information
10. ~ Information Sources
11. Information Sources in ~
12. ~ Intelligence Sources
13. Key to ~ Literature
14. Library Research in ~
15. Literature Matrix of ~
16. Literature of ~
17. Printed Reference Material ~
18. Reader's Guide to the ~
19. Reference Materials for the ~
20. ~ Reference Sources
21. Reference Sources in ~
22. Sources of ~ Information
23. Use of ~ Literature
24. Using the ~ Literature
25. Where to Look for ~

3 種類와 그 檢索

정보원 안내는 비기록 정보원을 포함하고 또 비도서 자료와 전산화한 디지털 자료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원 안내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를 들 수 있다. 정보원 안내를 어떻게 빨리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보 봉사에 있어서의 성공의 첩경일 것이다. 아래에선 유형별로 그 의의를 알아 본 다음, 어떻게 해당되는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검색 자료를 예시하려고 생각한다.

3.1 文獻 案內

정보원 안내 중에서 여태껏 잘 알려진 가장 흔한 것이 '문헌 안내' 이다. '문헌 안내' 란 특정 주제 분야의 특성을 밝혀 그 주제 분야를 세분한 다음, 그 분야의 연구 경향을 기술하고, 여러 가지 문헌을 안내한 저작물이다.

'문헌 안내' 는 문헌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문자(入門者)나 다른 전문 영역의 개관(槪觀)을 얻는 데 쓰는 자료이기도 하다.[6] '문헌 안내' 는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안내로 기록된 정보원의 자료만을 다룬다. 문헌 안내는 영어로 Guide to the literature라고 말할 수 있다. 문헌 안내를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ALA의 용어집이나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이후 ELIS라 약칭한다) 등의 사전에서 찾아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문헌 안내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주제의 종합적인 문헌의 유형별로 먼저 다룬 다음에, 세분된 주제의 좁은 분야별로 다룬 경우이다. 다른 한 가지는, 먼저 문헌의 유형별로 다루면서 그 문헌 속에서 좁은 주제분야를 함께 다루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선 1979년에 언급한 일[7]이 있다.

문헌 안내는 2차 서지이거나 경우에 따라 더 고차원의 서지라 할 수 있다. 2차 서지의 정의를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 보면,

> 1) 사용된 1차서지의 편찬을 위하여 한 주제에 관련된 도서만을 수록한 특수서지.
>
> 2)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재배열한 서지.

라고 정의하고 있다.[8] 한편 ALA의 용어집에 의하면,

> 한 주제에 관계가 있는 도서나 그 밖의 문헌을 취급하는 서지. 일차서지도 비교할 것.

6) 尹炳泰 編, 人文科學 情報소프트 (서울 : 외길사, 1994.3.1.), pp. 18-19.
7) 尹炳泰, "書誌科目의 內容," 圖書館學, 第六輯, (1979.12.15.), pp. 24-29.
8) 사공철 등 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10.15), pp. 163-164.

이라 정의하고 있다.[9] 이 문헌 안내와 정보원 안내와의 차이는, '문헌 안내'는 "기록된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안내하는 데 비하여, '정보원 안내'란 주제 분야와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원을 안내하기 위하여 만든 책자뿐만 아니라 비도서(시청각) 자료와 전자 자료(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기록 정보원까지 망라하고, 나아가서는 비기록 정보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말하기 때문에, 문헌 안내보다 넓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인 것이다.

문헌 안내를 검색하기 위해선, 외국의 경우, Guide to Reference Books에서 각 주제마다 첫머리에 있는 Guides라는 표목을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출판의 시차가 2-4년이 되므로 최근의 출판물을 구하려면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SGBIP)[10]를 이용하면 된다. 이 책에서 주제명의 세목 — Bibliography를 뒤지면 문헌 안내와 그 밖의 서지류를 찾을 수 있다. 전문 장서의 장서 목록도 들어 있다. 때로는 '— Library resource' 라는 세목을 보면 전문 장서의 도서관 목록도 들어있다.

이 Subject Guide는 1년이라는 시차가 있으므로 보다 최근의 자료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다른 방법의 하나는 RQ라는 계간지를 이용하면 된다. 그 책의 Sources란의 Professional Readings라는 소항목을 보면 최근에 출판된 문헌 안내가 소개되어 있다.

도서관에 어떤 문헌 안내가 소장되어 있는가를 알려면 분류기호에 의하여 바로 서가에 접근하면 된다. DDC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분류기호 016에서 주제 세분한 것을 찾으면 된다. 016은 다시 001부터 999까지 세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속에는 다른 종류의 서지류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주제별 서지와 문헌 안내를 016으로 모으지 않고 주제별로 분산한 경우가 있다. 그런 도서관에서는 표준 세분(Standard subdivision)인 016을 붙인 분류 기호를 찾으면 된다. 이 표준 세분(형식 구분)은 분류표에서 0016 또는 00016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일이다.

도서관에 따라, 혹은 DDC의 판에 따라 문헌 안내는 분류기호 028.7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 이 028.7은 "028.7 Use of books and other information media as sources of information standard subdivisions are added for either or both topics in heading class here use of reference works"라 있는 것처럼, 도서와 정보 이용법에 관한 자료를 분류하게 되어 있다.

도서관 정보학 분야의 색인지 Library Literature(LL)[11] 에는 최근에 나온 도서나 연속간행물 속에

9) Heartsill Young, editor,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p. 201.

10)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57- (N.Y. : Bowker, 1957-. 연간.) — BIP에 수록된 도서들을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서지로서 약 7만개의 LC 주제명 표목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Library of Congress, Children's, Forthcoming Books, Paperbound의 표목 일람표를 덧붙인 표목을 썼다. 그 밖의 유용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고, 약어표, 연도에 발행된 주제 안내를 찾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BIP와 마찬가지로 1980-1981년판부터 편집이 자동화 되었고, 자기 테이프에 수록되어 있고 CD-ROM도 발행되고 있다.

11) Library Literature, 1921/32- (Bronx, N.Y : H.W. Wilson Co., 1932-. 격월간 및 연간 누적판)— 이 색인지는 문헌 정보학의 도서에 대한 주제와 저자 색인이다. 연속 간행물 기사, 도서, 소책자, 도서관 학교의 학위 논문을 색인하였다. 문헌정보학의 개별적 서평에 대한 인용은 색인의 본체에 뒤따라 알파벳순으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종설 기사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난 것은 주제 아래에 또 색인하였다. 각 주제에 자리 잡은 특수 주제 도서의 일람표는 서평(Book Review)에 뒤에 두었다. 가격은 ISBD 와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에 이용할 때 부여하고 있다. 배열은 LC의 배열 규칙에 따라 하였고, 저작자 · 주제 · 서명 아래서는 첫 글자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였다. 개인과 단체명의 주제나 서명보다 저작자를 우선하여 배열하였다. 또 주제의 하위 세목은 주제 아래에서 다시 알파벳으로 구분하였다. 격월간으로 1년에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출판한다. 또 매년마다 누적판을 계속하여 출판하고 있다.

있는 기사를 색인하고 있다. 이 색인지의 Research Materials(연구 자료)라는 표목 아래의 세목 중에 'Special subject'가 있다. 이를 다시 더 좁은 주제로 세분하고 있다. 이 세목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주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명이나 지명까지 나온다. 이 LL은 지금 CD-ROM으로도 나오므로 검색하기 쉽게되었다. 이 LL에는 형용사형으로 시작하는 ~ Literature라는 표목으로 주제 분야의 문헌에 대하여 다룬 표목이 있다. 여기를 보면 문헌 안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일 서명으로 검색하고 싶으면 앞에서 든 관용 서명을 활용하여 Books in Print (BIP) : Title[12]에서 검색하면 될 것이다.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문헌 안내로는 Ray Prytherch의 Sources of Information in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13]를 들 수 있다.

3.2 研究 案內·研究 入門

연구 안내는 연구 입문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연구 안내는 학문의 주제분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어떤 분야가 있으며, 연구 영역은 어떻게 세분할 수 있나를 소개하는 학설사(學說史)를 간략하게 다루고, 이미 연구된 경향이나 업적을 소개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에서 꼭 들어 있는 연구 방법이 문헌적 연구 방법이다. 문헌적 방법에는 필요한 참고 문헌의 소개가 꼭 필요하다. 참고 문헌에 간략한 해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유형의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선, 주제 표목(記述子, Descripter)을 활용할 수 있다면 SGBIP를 이용하면 된다. 이 책에서 주제명의 세목 Study and teaching을 찾아보던가 형용사형의 복합 표목인 ~ Research를 찾으면 연구 안내를 찾을 수 있다.

DDC의 분류 기호를 알면 표준 세분(형식 구분)~072를 찾으면 된다. 최근의 출판물을 보려면 American Book Publishing Record (ABPR)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잡지에는 주제 색인도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연구 안내는 영어로 Introduction to ~ Research, Research Guide to ~라 부른다. (여기의 파선(~)은 주제의 명사형이나 형용사형을 생략한 것이다. 이하 똑 같이 취급한다.) 서명으로 검색하기 위

12) Books in Print (N.Y., Bowker, 1948-. 연간)— 이 책은 Bowker사의 Bibliogrphic Information Publication System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산하는 인쇄본으로, 도서의 서지 정보 이다. 미국내 출판사에서 연간 발행하는 도서에 대한 (현재 구입 가능한) 저자명·서명목록으로서 참고 봉사와 도서 구입을 위한 가장 유용한 서지이다. 1년에 약 70 만종의 도서를 소개하고 있고 최신의 신간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본판이 발행된 다음 4월에 약 18만권을 수록한 보유판을 발행한다. 이 책은 크게 Authors (vol.1~3), Title (vol.4~6), Publishers (vol.7~8), Out of Print/Out of Stock indefinitely (vol.9)로 나누어져 있다.

Authors편에서는 저자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하고 있어, 저자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Authors편은 v.1(A-F), v.2(G-O), v.3(P-Z)의 세 권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저자를 통해 그 저자가 쓴 책의 서명, 형태 사항, 발행 연도, ISBN 등을 찾을 수 있다.

Title편은 주제별 서명순으로 정리하고 있어, 서명을 통해서 저자, 출판사, 형태 사항, ISBN을 찾을 수 있다.

Pulishers편에서는 출판사의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였다. 출판사를 알파벳순을 통해 찾으면, 출판사의 명칭과 함께 주소, 전화 번호(무료 전화 까지 기재)를 기록하고 있다.

Out of Print/Out of Stock Indefinitely편에서는 비매품과 Out of Stock Indefinitely를 'Author'와 'Title'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980-1981년판부터 편집이 자동화되어 자기 테이프에 수록하였으며, 1985년부터는 Subject Guide.., Forthcoming Books, Subject Guide to Forthcoming Books와 더불어 BRS와 Lockheed를 통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다. Books in Print는 이외에도 British Books in Print (Author, Title & Subject Index), Canadia Books in Print, International Books in Print, Les Livers disponibles 등이 있다.

13) 이 책의 초판본의 영인본이 나온 것을 본 일이 있다. 출판사에서는 재빨리 2nd ed.을 출판하여 대처하였다.

해선, BIP : Title에서 검색하면 될 것이다. 관용 서명으로 Introduction to ~ Research, Research Method ~를 찾으면 된다.

3.3 書誌的 綜說 · 展望 · 評說

서지적 종설 · 전망 · 평설은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나 진행 중의 연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밝히면서 서술한 경우가 많이 있다.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경우도 있으나, 연속간행물 속의 기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Rutgers 대학에서 주제별로 출판한 State of Art 시리즈나 영국의 Aslib에서 출판하였던 Five Years Works ~ 그리고 미국의 Academic Press에서 여러 가지 Advances ~를 출판하고 있었던 것은 시리즈나 계속간행물의 예에 해당한다.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RIST)[14]나 영국에서 출판하는 여러 가지 Progress ~, Review of ~, Annual Review of~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헌을 "현황 문헌 (現況 文獻, State of Art Literature)"이라고도 부른다. 서평지(書評誌)도 넓은 의미의 서지적인 종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보〉에 연초마다 발표되는 "회고와 전망"이 이에 해당한다.[15]

서지적 종설 · 전망 · 평설을 찾으려면, Academic Press의 출판 목록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다. BIP : Title을 보아도 나오지만, 나오지 않으면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에서 찾으면 대개 있다. 이 두 가지 출판물은 Urich's Plus라는 CD-ROM에 수록되어 계간으로 나오고 있어 검색하기 용이하게 되었다. 아니면 LL에서 형용사형의 ~ Literature라는 표목에 가서 세목인 Review를 찾으면 서지적 종설을 찾을 수 있다. Guide to Reference Books에서 각 주제 분야 아래의 Guides 또는 Bibliography라는 세목을 찾아보면 서지적 종설을 찾을 수 있다.

3.4 專門 圖書館 便覽 · 雜誌

전문 도서관 편람이란, 특정 주제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 도서관 편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문 도서관 편람은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편람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주제분야의 참고 도서 · 서지류 · 연속 간행물과 같은 문헌을 비롯하여 온라인 정보 봉사망이 CD-ROM과 같은 데이터 베이스의 서지를 싣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계되는 단체 · 기관 등의 명감을 수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연속간행물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따라, 각 주제분야의 '전문 도서관 잡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문 도서관 잡지에는, 최근에 출판된 참고도서 · 데이터베이스 · 단행본의 서평이나 소개가 있어, 좋은 문헌 안내의 역할을 한다. 또 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서지를 수록하기도 하며, 서지적인 기사를 수록하기도 한다.

전문 도서관 편람 · 잡지를 찾을려면, Guide to Reference Books에서 Library science 아래의 Handbooks, manuals를 뒤지면 필요한 주제 분야의 전문 도서관 편람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판차에

14) 이 책은 국내의 해적판이 돌고 있다.

15) 이 중에서 '서지학'분야는 필자에 따라 취급하고 있는 량과 질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

따라 절판본은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SGBIP에서 전문 도서관 편람을 찾으려면 ~Libraries라는 표목을 찾으면 된다. 한편 LL에서는 ~ Library and Collections 이나 ~Libraries 라는 표목 아래에 있는 자료를 찾으면 된다.

전문 도서관 잡지 중의 정기간행물은 Ulrich's International Directory 중에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을 뒤지면 된다. 부정기 간행물일 때엔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중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을 뒤지면 된다. 또 Magazine for Libraries에서 역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해제가 있어 이해하기 쉽다. Library & Related Publications라는 도서관 · 정보학 관계 전문 명감도 있다. 이 명감에는 주제 색인도 있어 찾기 쉽다.

3.5 書誌의 書誌

서지의 서지는 사실상 3차 정보원 또는 2차 서지라 할 수 있다. 이는 서지의 안내서 역할도 한다.

서지의 서지를 찾을 수 있는 4차 정보원 즉 3차 서지는 많이 있다. 한국 자료는 諸洪圭의 〈韓國書誌關係 文獻目錄〉을 검색하면 될 것이다. 일본 자료는 〈日本の參考圖書 解說總覽〉이나 〈日本書誌の書誌〉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서양의 '서지의 서지'는 LL에서 ~ Literature라는 표목 아래에서 세목으로 Bibliography를 검색하면 될 것이다. SGBIP에서 주제 표목 아래의 세목 Bibliographies를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Bestermann의 World Bibliography of Bibliographies에서 주제 분야를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서지 관계 색인지로 Wilson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Bibliographic Index에서 주제 분야를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 유네스코에서 매 5년마다 출판하던 Bibliographical Services throughout the World에도 서지의 서지가 들어 있다. 필자도 이 책에 2회나 기고한 일이 있다.[16]

3.6 專門 著述法 · 著述 便覽

많이 출판되지 않지만, 주제분야의 전문적인 저술법이나 저술의 편람은 정보원 안내의 역할을 한다. 연구한 결과는 저작으로 나타나므로, 주제분야의 저술법이나 저술 편람에는 그 주제분야의 중요한 참고도서나 도서 · 연속 간행물 그리고 전자 출판물에 관한 정보원이 들어 있다. 영어의 관용 서명으로 A Guide to Writing 같은 말이 들어가 있거나 Handbooks of Writing ~이나 Manual of ~ Writing과 같은 어휘가 있으면 전문 저술법이나 저술 편람으로 볼 수 있다.

전문 저술법 · 저술 편람을 찾으려면, SGBIP에서 Authorship이라는 표목 아래의 세목 Handbooks,

16) ㄱ. "Republic of Korea." in Beaudiquez, Marcelle, Bibliographical Services throughout the World 1975-1979 (Paris : Unesco, 1984.), pp. 341-349.
ㄴ. "Republic of Korea." in Beaudiquez, Marcelle comp., Bibliographical Services throughout the World 1970-74 (Paris: Unesco, 1977.), pp. 252-258.

manuals, etc.와 Style Manuals를 검색하면 된다. 아니면 주제 분야의 Handbooks, manuals, etc.라는 세목을 검색하면 된다.

3.7 ELIS의 項目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는 현재 나와 있는 도서관 · 정보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주제 전문 백과 사전이라 할 수 있다. ELIS에는 집필자의 기명을 밝힌 주제에 관한 문헌 안내적인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없는 주제분야도 있다.). ~ Collection, ~ Libraries and collections 와 같은 항목이 해당된다. ELIS는 해마다 추록이 나왔으므로 그 누적 색인을 잘 활용하여야만 된다.

3.8 專門 事典의 項目

지금은 백과사전도 전문화하여 세분 분야의 전문 사전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주제 사전의 항목에도 문헌 안내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이 들어 있다. 전문 사전에 나오는 몇 가지 공통되는 항목의 표목을 보면, Bibliography, Documantation, Information, ~ Information Sources, Library, ~ Literature, Reference Books, Reference Sources 등을 들 수 있다.

전문 사전의 항목을 찾으려면 먼저 전문 사전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전문 사전은 분류 기호에 표준 세분(형식 구분) 03이 붙어 있어 비교적 찾기 쉽다. SGBIP에서 주제 분야의 세목 Encyclopedias and dictionaries나 Dictionaries를 찾아보면 전문 분야의 사전을 찾을 수 있다. 전문 사전을 찾아내었으면, 앞에서 예시한 항목을 찾아보면 정보원 안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9 連續 刊行物의 記事

도서관 · 정보학 · 출판 분야의 학회지 · 학술 회의록 · 전문 잡지를 보면 문헌 안내적인 기사가 많이 들어 있다. 때론 여러 주제분야의 전문지를 보아도 나타난다. 이러한 문헌 안내적인 기사도 아주 좋은 문헌 안내가 될 수 있다.

외국 잡지의 연속 간행물 중의 정보원 안내에 관한 기사를 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LL을 검색하는 것이다. LL에서 ~ Literature라는 표목이나 Research Materials라는 표목을 검색하면 될 것이다. 한국의 연속간행물 기사를 검색하려면, 노재봉 · 홍강표 공편의 〈한국문헌정보학관련색인〉을 검색하면 된다. 이 색인은 상 · 하 2 책의 인쇄된 책자와 CD-ROM 1장이 있어 검색이 쉽다.[17]

17) 노재봉 · 홍강표 공편, 한국문헌정보학관련색인, 상 · 하 (서울 : 인스정보, 1997.1. 10.). 2 책 + CD-Rom 1 ; 26.1 cm. (인수정보총서, 1). 特裝本.

3.10 專門 情報 奉仕의 理論書

요사이는 주제 · 분야마다 그 주제 · 분야의 정보 봉사에 관한 이론과 실무서가 출판되고 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세분된 분야까지 출판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너무나 세분된 정보 봉사의 이론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출판물은 영 · 미 중심으로만 내용이 짜여 있지만, 이러한 중 · 일의 출판물은 세계적으로 수록범위를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 봉사의 이론서에는 예외 없이, 참고 도서의 이용법을 포함하여, 초록지나 색인을 비롯하여,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이나 CD-ROM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전자 자료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인지 '정보 검색서' 라는 말이 붙는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에 의한 정보 이용에 관한 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모두가 좋은 정보원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 정보 봉사의 이론서를 찾으려면, SGBIP를 이용하면 된다. 이 책에서 형용사형으로 시작하는 ~ Information Service 라는 표목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다. 이 글의 참고 문헌 중에서 최신의 판을 보면, 그 시기까지 출판된 각 주제 분야의 전문 정보 봉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압수할 수 있을 것이다.

4 作成할 內容

정보원 안내의 작성에 대하여 다룬 자료 중에서 Ashworth가 영국의 전문 도서관 편람에 수록한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있다.[18] 아래에서 그 내용의 차례를 약간 바꾸고 또 부분적으로 보충하여 수록한다.

1. 서론 - 수록하는 범위를 정의를 내린다. 유관한 주제분야의 안내가 있으면 참조케 한다.

2. 간행한 문헌이나 기록 - 간행한 아래와 같은 문헌이 있으면 밝힌다:
   a. 권위 있는 참고도서, 도서, 소책자 등.
   b. 명감, 전기관계 정보를 수록한 출판물, 학회 회원 명부.
   c. 연속간행물 :
      i. 학회, 기관, 대학 등의 출판물.
      ii. 상업 출판물.
      iii. 관내 기관지(자관용).
      iv. 초록지와 색인지.

i부터 iii까지는 중요한 몇가지만 예시하되, iv는 자세하게 기술한다. 연간 종설지는 꼭 넣는다.

18) Wilfred Ashworth, ed., Handbook of Special Librarianship, 3rd ed. (London : Aslib, 1967), pp. 450-452.

d. 총서 (도서와 소책자의)
e. 서지류 (서지의 서지류를 포함한다)
f. 상품(제품) 목록.
g. 특허.
h. 표준 규격.
i. 법령집을 포함한 의회 간행물.
j. 통계.
k. 보고서.
l. 문서류.
m. 지도와 지도첩.
n. 그림, 사진과 도감.
o. 필름, 필름 스트립, 슬라이드와 비디오 자료.
p. 녹음물.
q. 데이터베이스 - CD-ROM, 등.

3. 기구(機構) - 국내나 국제적.

가. 포함해야할 기구의 유형은 :
a. 정부 부처, 연구소, 위원회, 대사관, 상무관, 기타 지방 · 국가 · 국제적인 기관.
b. 연구 단체.
c. 연구 기관.
d. 산업 및 상업 회사 (특히, 연구 개발 부서, 정보 부서 및 도서관)
e. 무역, 상업 및 개발 기관.
f. 전문직 기관과 학회.
g. 자문가.
h. 박물관.
I. 대학과 전문 학교 (선택적).
j. 유관한 전문 장서가 있는 공공 도서관.
k. 기타 기관으로 관련분야의 정보 봉사나 도서관 봉사를 하는 곳.

나. 이러한 기관마다 기입할 것은 :
a. 정식 명칭.
b. 주소. 우편 번호.
c. 전화 번호. 교환 번호. Fax 번호.

d. 기능의 개요, 활동의 범위, 만일 광범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면 특별히 관계가 있는 분야.
e. 그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정도.
f. 질문에 응할 수 있는 담당자와 연락처.
g. 참고할 출판물 특히 잡지.

위와 같은 정보는 그 기관에서 최근에 구한 것이여야 한다.

4. 출판된 문헌이나 기록을 구하는 방법.

a. 구입으로.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b. 요청해서. 예를 들어, 회사나 개발 단체 등에서 편찬한 문헌은 요청하면 무료로 구할 수 있다.
c. 빌려서 / 도서관 상호 대차로.
d. 복사로 국립 도서관, 특허청이나 다른 기관의 복사 봉사를 이용하여. 보고서나 어떤 자료는 마이크로 필름이나 마이크로 카드로 가능하다.

5. 일반적인 시설. 사내보 등.

6. 색인. 큰 안내서에는 이름과 주제 색인이 기본이다. 작은 안내서는 목차만으로도 충분하다.

5 作成의 過程

정보원 안내의 작성 과정에 관한 요인의 분석을 돕기 위하여, 발행 계획의 유용한 단계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Taylor는 말하고, 아래와 같은 여덟 가지 단계를 지시하고 있다.[19]

(1) 원자료의 교섭.
(2) 원자료에서 필요한 정보 추리기.
(3) 이 정보의 정리.
(4) 발간용 초고 작성.
(5) 발간물 생산.
(6) 책의 배포.
(7) 책의 보존.
(8) 발간후 정보 검색.

(1)부터 (3)까지의 단계에서는 정보원 안내용의 적당한 자료를 추리는 전문적 · 비판적 기능의 활용

19) P. J. Taylor, Information Guides 전게서, pp.4-5.

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의 요인으로는

(a) 정보원 안내의 범위,
(b) 예상되는 이용자,
(c) 정보원 안내의 수준,
(d) 정보원 안내의 예상되는 이용 등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4)서부터 (7)까지의 단계에서는 안내서의 물리적 생산과 배포를 다룬다.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

(a) 형식,
(b) 비용,
(c) 인사 가능성

이다. 마지막 (8) 단계에서는 완성한 정보원 안내를 두고 사용하는데 관한 문제들이다.

6 主題別 案內의 範疇[20]

이들은 각각 ① 특성(特性), ② 이차 정보원(二次 情報源), ③ 찾아낸 정보원의 세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1. 정의(定義)나 영역(領域)

가. 정의(定義)
나. 영역(領域)
다. 어휘(語彙)

2. 주제(主題)의 분류(分類)

가. 학문(學問) · 지식(知識)의 분류(分類)
나. 종합 분류표(綜合 分類表)
다. 전문 분류표(專門 分類表)
라. 주제 표목표(主題 標目表)

20) 이 범주의 일람표는, 필자가 1976년에 경북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만든 것이다. 이는 Addison-Wesley사에서 1978년에 Library Pathfinder를 발매하기 2년 전의 일이다.

마. 검색 어전(檢索 語典, Thesaurus)
바. LCSH - L.C. Subject Heading
사. KSH - 이재철 / 주제명표목표

3. 정보원 안내(情報源 案內)

가. 문헌 안내(文獻 案內)
나. 연구 안내(硏究 案內) · 연구 입문(硏究 入門)
다. 서지적 종설(書誌的 綜說) · 전망(展望) · 평설(評說)
라. 전문 도서관 편람(專門 圖書館 便覽) · 전문 도서관 잡지(雜誌)
마. 서지(書誌)의 서지(書誌)
바. 전문 저술법(專門 著述法) · 전문 저술 편람(專門 著述 便覽)
사. ELIS의 항목(項目)
아. 전문 사전(專門 事典)의 항목(項目)
자. 연속 간행물(連續 刊行物)의 기사(記事)
차. 전문 정보 봉사(專門 情報 奉仕)의 이론서(理論書)

4. 기본 참고원(基本 參考源)과 그 서지(書誌)

가. 사전(事典)
나. 사전(辭典) · 용어집(用語集) · 약어집(略語集)
다. 편람(便覽) · Handbuch
라. 연감(年鑑) · 연보(年報)
마. 명감(名鑑) · 인명록(人名錄) · 인명 사전(人名 事典)
바. 도감(圖鑑) · 도록(圖錄) · 도보(圖譜)
사. 사진집(寫眞集) · 사진첩(寫眞帖)
아. 통계(統計)

5. 소급 서지(遡及 書誌)

가. 포괄 서지(包括 書誌)
1) 국제 서지(國際 書誌)
2) 전국 서지(全國 書誌) · 지방 서지(地方 書誌)
3) 상업 서지(商業 書誌)

4) 전기부 서지(傳記附 書誌)
5) 개인 서지(個人 書誌)
6) 일서 서지(佚書 書誌)
나. 선정 서지(選定 書誌)
다. 해제(解題)
라. 색인(索引) · 인득(引得)
마. 초록(抄錄) · 제요(提要)
바. 목차 총람 · 총목록(目次 總覽 · 總目錄)

6. 현시적 서지(現時的 書誌)와 그 서지(書誌)

가. 서목지(書目誌)
1) 현행(現行)
2) 예고(豫告)
나. 색인지(索引誌)
다. 초록지(抄錄誌)
라. 인용 색인지(引用 索引誌)
마. 목차 속보지(目次 速報誌) - 복제(複製)
바. 서평지(書評誌)
사. 종설지(綜說誌)

7. 정보 봉사(情報 奉仕)와 데이터베이스(Data-bases)

가. 이론서(理論書) · 잡지(雜誌)
나. 연속간행물(連續刊行物)
다. 연속간행물의 기사(記事)
라. 명감(名鑑)
마. 개개의 데이터베이스
바. 정보 봉사 기관(情報 奉仕 機關)

8. 전문 장서(專門 藏書) · 전문 도서관 장서 목록(專門 圖書館 藏書 目錄)

가. 전문 장서(專門 藏書)
나. 도서관 장서 목록(圖書館 藏書 目錄)

다. 전시 목록(展示 目錄)
라. 종합 목록(綜合 目錄)
1) 도서(圖書) · 단행본(單行本)의 종합 목록(綜合 目錄)
2) 연속간행물(連續刊行物)의 종합 목록(綜合 目錄)
3) 비도서 자료(非圖書 資料)의 종합 목록(綜合 目錄)

9. 특수 유형 자료(特殊 類型 資料)의 서지(書誌)

가. 연속간행물(連續刊行物)의 서지(書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서지(書誌)
2) 부정기간행물(不定期刊行物)의 서지(書誌)
3) 신문(新聞)의 서지(書誌)
나. 정부 간행물(政府 刊行物)의 서지(書誌) - 자료의 유형별로.
1) 국제 기구(國際 機構) 간행물(刊行物)의 서지(書誌)
가) 도서, 단행본, 나) 연속간행물,
다) 참고 도서, 라) 비도서 자료, 마) 전산 정보원.
2) 각국(各國) 정부 간행물(政府 刊行物)의 서지(書誌)
가) 도서, 단행본, 나) 연속간행물,
다) 참고 도서, 라) 비도서 자료, 마) 전산 정보원.
3) 지방 정부 간행물(地方 政府 刊行物)의 서지(書誌)
가) 도서, 단행본, 나) 연속간행물,
다) 참고 도서, 라) 비도서 자료, 마) 전산 정보원.
4) 국책 연구 기관(國策 硏究 機關)의 서지(書誌)
가) 도서, 단행본, 나) 연속간행물,
다) 참고 도서, 라) 비도서 자료, 마) 전산 정보원.
5) 국영 기업체(國營 企業體)의 서지(書誌)
가) 도서, 단행본, 나) 연속간행물,
다) 참고 도서, 라) 비도서 자료, 마) 전산 정보원.
다. 학위 논문(學位 論文)의 서지(書誌)
라. 보고서(報告書)의 서지(書誌)
마. 회의록(會議錄)의 서지(書誌)
바. 번역서(飜譯書)의 서지(書誌)
사. 전집(全集) · 총서(叢書)의 서지(書誌)
아. 계보집(系譜集)의 서지(書誌)

자. 지도 자료(地圖 資料)의 서지(書誌)
차. 단체 간행물(團體 刊行物)의 서지(書誌)
카. 대학 간행물(大學 刊行物)의 서지(書誌)

10. 비인쇄(非印刷) · 시청각 자료(視聽覺 資料)의 서지(書誌) · 목록(目錄)

가. 사진(寫眞)
나. 영화(映畵)
다. 마이크로 자료(Microforms)
라. 녹음 자료(錄音 資料) : 음반(音盤) · 테이프,등.
마. 녹화 자료(錄畵 資料) : 비디오 카세트, 등.

11. 전산 정보원 (電算 情報源)

가. 온 라인(On-line)
나. 광 디스크 (디스켓, CD-ROM, 등)
다. 멀티 미디어(Multi-media)

12. 특정 유형(特定 類型)의 참고 도서(參考 圖書)와 그 서지(書誌)

가. 전집(全集) · 총서(叢書) · 강좌(講座) · ~집(集)
나. 성전(聖典)
다. 용어 색인(用語 索引) · 요어 색인(要語 索引)
라. 도표(圖表) · 제표(諸表) · 공식집(公式集) · 도식집(圖式集) · 단위(單位)
마. 역사 총집(歷史 總集) · 정사(正史)
바. 연표(年表) · 연보(年譜) · 일감(日鑑)
사. 사료집(史料集) · 사료 집진(史料 集眞)
아. 고문서 접성(古文書 集成) · 고문서 집진(古文書 集眞)
자. 계보집(系譜集)
차. 지명 사전(地名 事典)
카. 지도첩(地圖帖)
타. 특허(特許) · 명세서집(明細書集) · 표준 규격(標準 規格)
파. 상품 목록(商品 目錄), 상표 도록(商標 圖錄), 표본집(標本集)
하. 명명법(命名法) · 명록(名錄), 분류(分類)

거. 법령집(法令集), 법전(法典) · 판례집(判例集) · 예규집(例規集)
너. 약전(藥典) · 약품 목록(藥品 目錄) · 조제 법전(調劑 法典)
더. 실험 편람(實驗 便覽) · 기구 도록(器具 圖錄)
러. ~어 편람(~語 便覽)
머. 데이터집

13. 중요한 연속간행물(連續刊行物) : 선택적 잡지명(選擇的 雜誌名)

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
  1) 정부(政府)
  2) 민간(民間)
나. 부정기간행물(不定期刊行物), 연간물(年刊物)
  1) 정부(政府)
  2) 민간(民間)
다. 백서(白書)
라. 번역지(飜譯誌)
마. 보고서(報告書)
바. 회의록(會議錄) · 회의 예보지(會議 豫報誌)
사. 논문 속보지(論文 速報誌)
아. 통신지(通信誌) = 레터지(Letter journal)

14. 중요한 단체(團體)의 명칭(名稱)과 그 명감(名鑑)

가. 국제 기구(國際 機構)
나. 정부 부처(政府 部處) : 도별(道別) · 지방(地方)
다. 학회(學會)
  1) 국제 학회(國際 學會)
  2) 전국 학회(全國 學會)
  3) 지방 학회(地方 學會)
라. 연구 기관(硏究 機關)
마. 전문 대학원(專門 大學院), 대학(大學)의 전문 학과(專門 學科)
바. 전문직 단체(專門職 團體)
  1) 국제 단체(國際 團體)
  2) 전국 단체(全國 團體)

3) 지방 단체(地方 團體)

사. 회의(會議)

1) 국제 회의(國際 會議)

2) 국내 회의(國內 會議)

15. 전문인(專門人)의 인명(人名)

16. 진행중 연구(進行中 硏究)의 서지(書誌)

17. 세분 서지(細分 書誌) · 참고(參考)/정보원(情報源)

7 結 言

이상에서는 정보원 안내에 대하여 그 정의와 종류 그리고 서명으로 자주 쓰이는 관용어로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정보원을 검색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정보원 안내를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고, 그를 작성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주제별 정보원 안내의 범주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논하였다.

이러한 정보원 안내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여러 도서관에서도 만들어서 이용자에게 종이 인쇄물이나 전자 출판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이 없이는 도서관은 정보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모든 도서관 자료를 전산화하는 마당에, 도서관의 사서가 전문직으로 존재할 근거마저도 흔들릴 것이다. 종래의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이 너무나 기능 중심의 교육에 안주하고 있는 것 보다도, 내용 위주(contents oriented)의 것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방면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도서관에서 정보원 안내를 피상적으로 남이 만든 일람표를 베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서로 하여금 자료에 접근하여 친밀하게할 필요가 있다. 안내서에 수록하는 자료의 청구기호를 밝히는 일도 꼭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만든 안내서에는 있으나 자기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제빨리 구하여서 비치할 필요도 있다. 아니면 다른 어느 도서관에 있는가를 밝혀, 도서관 자원과 정보의 공유 · 공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끝에 부록으로 필자가 수집한 정보원 안내 전부의 목록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수록하려 하였으나,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이러한 정보원 안내는 아래의 '參考 文獻'에서 제시한 필자의 책을 참고하면 될 것이고, 최근의 자료는 이 글의 '3'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필자가 수집한 모든 외국 서적이나 자료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면 한꺼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 文獻 (書名順)

人文科學 情報소프트 / 尹炳泰 編. 서울 : 외길사, 1994.3.1. 348 + 〔10〕 p. 삽도. 22.5 cm. (主題 情報 소프트, 1).

人文科學書誌情報源 / 尹炳泰. 大田 : 라이프社, 1986.3.1. 254 p. 26.4 cm.

人文 · 社會科學文獻 · 書誌情報源 / 尹炳泰. 서울 : 利久出版社, 1983.8. 15. v + 506 p. 26 cm. 特裝本.

人文 · 社會科學書誌 / 〔尹炳泰.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86.6.15. 100 p. 26 cm. 수강생에게 무상배포.

社會科學書誌情報源 / 尹炳泰. 大田 : 라이프社, 1986.3.1. 285 p. 26 cm.

自然科學 · 技術文獻 · 書誌情報源 / 尹炳泰. 私家版, 1983.9.15. iii + 185 p. 26 cm.

韓國書誌 〈稿〉 / 尹炳泰. 大田 : 白馬社, 1989.3.1. 90 p. ; 26 cm.

Information Guides ; a survey of subject guides to sources of information produced by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 P. J. Taylor. London : British Library Board, 1978. 106 p. illus., facsims. 29.3 cm. (The British Library Research & Development Reports, Report No. 5440).

文獻檢索課 教學研究手冊, 下冊 : 成果綜錄 / 張杯濤 · 曹培根 主編. 北京 : 海洋出版社, 1996.9. 485 p. 20.2 cm.

* 참고 도서의 해제류는 생략하였다.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한 소고

金 聖 愛*

目次

Ⅰ 머리말
Ⅱ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 현황
Ⅲ 중국 대학도서관 디지털시스템 구축에서의 문제점
1 디지털시스템 구축에 기울인 노력이 부족하다.
2 기술역량이 아주 결핍하다.
3 상호 협력의식이 부족하다.
4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문제점
5 전문도서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Ⅳ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 원칙
1 이용자 우선 원칙 2 특성 원칙
3 상호협력 원칙 4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칙
Ⅴ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의 구축방안
1 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의 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2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3 통합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계속 교육과 정보처리 기술자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Ⅵ 맺는 말

Ⅰ 머리말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고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로서 컴퓨터기술,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보환경은 커다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급속한 혁신은 도서관의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에 대하여 아주 큰 충격을 주고있는 한편 정보서비스 혁신에도 아주 좋은 기술조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중국은 정보기술, 컴퓨터기술, 인터넷기술 등은 뒤떨어진 편이나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이미 정보화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서관 또는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학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대학도서관은 정보혁신의 파도에 밀려 변혁할 수 밖에 없는 시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시스템 구축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중국 장춘세무학원 도서관 사서, 현재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국비연수로 있음.

Ⅱ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 현황

현재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1994년 11월 전국과 지역 문헌정보센터를 중심으로"211공사"(중국정부가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의 100개의 종합대학을 세계 일류대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에 소속한 모든 대학교들은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학도서관의 문헌정보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아울러 미래 중국의 중심적인 학술도서관 웹사이트가 될 中國教育科研網(CERNET)의 구축 및 사용, 郵電部의 中國公用컴퓨터전산망(ChinaNet), 國家教育委員會의 中國科學技術전산망(CSTNet), 電子部의 中國金橋정보망(ChinaGBN) 및 유선방송망(이미 700여만 호의 이용자가 있음) 등의 구축은 중국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운행에 많은 정보전송 통로를 제공하였다. 1995년 국가도서관(전 북경도서관)은 국제 디지털도서관의 발전동향을 추적하여 관련된 표준 · 규범 · 기술 등을 알아내어 이를 연구항목에 도입하여 일정한 경험을 쌓았고,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에 대한 인식도 가지게 되였다. 1997년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中國試驗型 디지털도서관"이란 연구항목을 세워 국가도서관을 필두로 이 항목을 실행하여 전국 범위에서 중국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하여 기초를 닦았다. 따라서 국가발전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중국 대학교육 문헌정보 시스템"(China Academic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비준하였는바 이는 "전국센터—지역센터—대학도서관" 3급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211공사"에 포함한 대학도서관의 소장도서, 학회지, 잡지의 공동목록 데이터베이스, 7개 지역의 소장도서 잡지의 공동목록 데이터베이스, 외국문헌의 데이터베이스, 대학특성을 지닌 문헌의 데이터베이스, 몇 개의 중점학과들만이 공용(公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축으로 中國教育冊및 科研컴퓨터망들은 중국의 대학교육을 위하여 잘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용시스템에서의 정보검색, 상호대차, 공동구입, 공동편목 등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중요한 정보기초시설로 될 것이다. 따라서 1998년 8월 국가발전위원회에서의 중국 디지털도서관 공사에 대한 정식적인 출범과 시행은 대학디지털도서관 구축에 새로운 계기를 주었다.

현재 중국의 각 대학교 디지털도서관 구축의 시작은 늦었으나 발전은 매우 빠른 편이다. 적지 않은 도서관에서 업무관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수동적 관리에서 컴퓨터관리로 변화하였으며 학내망 구축 시기에 들어서 디지털화로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를 닦고있다. 최초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부터 지금의 표준화 목록의 편목 및 대출의 전자화 등, 또한 많은 대학도서관들에서는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멀티미디어를 갖춘 전산실 등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211공사"에 소속한 일부 대학도서관들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도서관의 정보들을 인터넷에 올려놓아 시 ·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공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Ⅲ 중국 대학도서관 디지털시스템 구축에서의 문제점

1 디지털 정보구축에 기울인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 중국 대학도서관의 대다수는 이미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입, 편목, 대출, 검색 등의 업무는 이미 자동화를 실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초보적인 사용단계에 머물러 있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여서 전자정보의 제공 등의 서비스는 아직 아주 부족하며 현재 소장한 문헌들 중 디지털화한 자료도 아주 적다. 또한 전산망에 연동되어 있는 자원이 단지 소장한 목록뿐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산망의 자원은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학 인식이 부족하여 디지털화 자원구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즉, "211공사"에 소속한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대다수 도서관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수동 서비스에만 익숙되어 자동화시설 활용에 대하여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고, 아직도 장서량 등으로 도서관의 규모와 기준을 가늠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2 기술역량이 아주 결핍하다.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은 정보기술의 부족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도서관 전산시스템에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등은 전산기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많은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은 단지 소장한 문헌의 관리 및 본교 이용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에 불과할 뿐 네트워크지식, 인터넷지식은 아주 부족하며 컴퓨터와 정보자원을 활용 ·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원도 부족한 상태이다. 즉, 사서들은 아직 네트워크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상호 협력의식이 부족하다.

디지털시스템 구축은 협력이 아주 필요하다. 중국의 많은 대학도서관들에서 디지털시스템 구축 시 단지 본교의 자원공용에만 국한되고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용하여야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특히 국내의 다른 시스템 및 인터넷의 접속 등 문제를 고려하여 더욱 큰 범위에서 자원을 공용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4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문제점

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도서관 디지털화 구축의 기초이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즉, 현재 대다수 도서관들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자유적인 상태로서 自建自用하며 그 구축량은 소장한 문헌수량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둘째, 어떤 도서관들에서는 구축에 대한 적극성은 높으나 이에 대한 이용은 적은 편이고, 그 질도 높지 못하다. 셋째, 대형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양은 적은 편이고 소형 데이터베이스는 보편적으로 규범화되지 않았으며 격식도 통일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네트워크상의 정보교류와 공용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5 전문도서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각 도서관들은 각자의 특성을 지닌 문헌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들의 전문도서 소장량은 아주 적은 편이다. 즉 어떤 도서관들의 전문도서의 소장량은 전체 장서량의 0.1%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Ⅳ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 원칙

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은 국가 정보구축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지식경제의 중요한 기초시설 및 필요한 조건이고, 정보를 조직,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며 문화 산업의 발전과 21세기 경제성장의 내재적인 요구이다. 또한 디지털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 인터넷상의 중문정보(中文情報)가 아주 결핍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문화 영향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시스템 구축은 아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 우선 원칙

이는 도서관의 일관적 원칙이다.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최종목적이다. 만일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정보자원이 아무리 특성이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은 디지털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흥미를 잘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부 및 학과분야의 연구계획에 따라 목적 있게 학과내용, 문헌의 유형, 정보의 형태 및 디지털 제품의 구입 등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문헌자원을 디지털화 할 때는 단지 디지털화로의 전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내용상의 확충과 질도 향상하여야 한다.

2 특성원칙

특성원칙은 중점(重點)학과의 주제(主題)문헌의 특장(特藏)과 중점(重點)문헌의 전장(專藏)에 많이 두어야 한다. 특장(特藏)은 도서관의 특유(特有)한 것이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문헌의 특장(特藏)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즉, 목록과 2차 문헌의 키워드로부터 전문(全文), 그림, 소리, 영상들을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소형 특장(特藏)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점전장(重點專藏)은 도서관의 소장 질과 성과를 대표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소장목적과 품격의 특성을 구현하며 도서관의 영예와 경쟁력에 아주 큰 의의가 있다. 즉, 한 도서관의 디지털자원은 반드시 본관의 특성과 구축 사고가 있어야 하지 다른 도서관의 것을 무조건 모방하여서는 안 된다. 향후의 분산된 정보

환경 하에서는 반드시 독특하고 유일한 특징을 갖는 디지털도서관만이 인터넷상에서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갖춘 백화점식 디지털도서관은 처음에는 꾸려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문 디지털도서관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3 상호협력 원칙

타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원칙은 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다. 즉, 각 도서관마다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및 노력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중복 노동과 인적, 물적, 시간상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4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칙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쌓아야만 자원의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중점(重點)자료와 특성(特性)자료에 대하여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완전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과학적 원칙이란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에 분포된 정보의 규율성을 연구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과학적인 태도로서 사회적 감독이 결핍한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하여서는 감별하여 가치 있는 정보들만 추려내야 한다.

Ⅴ 중국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의 구축 방안

1 도서관의 디지털시스템 구축의 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전달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나 현재 많은 도서관들의 업무처리효율과 정보처리 능력은 아주 부족하므로 반드시 디지털시스템 구축의 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하며 디지털 정보자원구축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즉, 목록의 디지털화, 특성문헌의 디지털화, 전자문헌의 구입, 인터넷상의 정보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 등은 각 도서관의 문헌정보 매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2 표준적이고 규범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디지털도서관 구축의 기초로서 자원공용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각 도서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 반드시 합리적인 분포를 하여야하며 사전의 준비도 철저히 하여 그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은 장기적인 일로서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하며 현재의 소장한 자원을 기초로 계획 및 절차있게 각 도서관의 검색시스템과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표준화, 규범화의 원칙, 질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분산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연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표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원구축은 도서관 자동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도서관리시스템과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 시스템 환경에서는 도서관 업무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정보를 그 즉시 자연스럽게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환경에서의 자료의 갱신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든지 이용자에게는 그 즉시 갱신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경비의 결핍으로 도서관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서관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문헌자원의 구축과 선진설비의 구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디지털자원 구축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서관 관장은 많은 조치를 취하여 학교에서 자금을 많이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여야만 문헌자원의 수량을 증가할 수 있고 네트워크 수준도 높일 수 있다 .

5 계속교육과 정보처리 기술자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 디지털화 자원구축은 전문지식과 일정한 외국어수준, 컴퓨터 및 네트워크 지식, 검색기능 등을 갖춘 정보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들이야말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도서관 사서들의 전체적인 자질은 아직 높지 못하기에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들에서는 한편으로는 컴퓨터 기술자들을 적극 채용 · 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서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 업무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만 도서관의 발전 요구에 발 맞출 수 있다.

Ⅵ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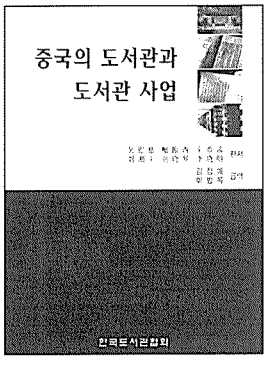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다. 디지털시스템 구축은 대학도서관의 문헌정보 자원의 "共建共享"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본조건 이다. 현재 초보적으로 갖춘 도서관 디지털화를 진일보로 확충시키려면 모든 도서관들은 정보자원을 네트워크상에 올려 공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의 정보요구에 근거하여 디지털 도서관 자문(諮問) 시스템도 갖추어야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국내외의 전문(全文)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자료, 학회지, 잡지, 전자문헌 등의 정보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인터넷상의 정보자원을 질서 있게 수집 및 조직하여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발전 목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범효봉,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대한 연구" 중국, 대학도서관 학보, 2001.1.pp.12~14.
조배운, "중국 디지털도서관 발전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 대책", 중국, 도서정보, 2001.6.pp.69~72.
장 숙,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 구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대책" 중국, 정보기술, 2001.3.pp.44~47.
한 운, "대학도서관의 네트워크 정보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 중국, 도서관 구축, 2001.3.pp.74~75.
계 영,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의 발전전경 및 대책에 대한 연구" 중국, 정보과학, 2001.5.pp.474~476.
황금숙, "디지털도서관 기획 및 구축방법", 한국, 디지털 도서관, 2001년 여름호. pp.97~109.
유양근, "디지털 도서관", 한국, 희중당, 2000년.

신 간



중국의 도서관과 도서관 사업

김정애 공역
이병목

목차

- 각종 도서관의 착실한 발전
- 도서관 건물의 현저한 개선
- 기초업무 건설의 강화
- 도서관 평가와 문헌 자원 조사
- 새로운 봉사 영역의 개척
- 도서관에서의 현대 기술의 응용
- 도서관 관리체제의 개선
- 각종 도서관학 교육 과정의 점진적 설치
- 도서관학 연구의 새로운 진전
- 국제 왕래와 학술 교류의 증가

4×6배판/141쪽/정가 10,000원
회원보급가 8,000원
ISBN 89-7678-054-×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